발표

<시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책의 제목부터 시작한다.

시학의 시는 동양에서는 말 그대로 시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지만 서양어의 Poiesis 서사시 소설 희곡을 모두를 포함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 문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할 때 플라톤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두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달랐고 그 관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모방,

스토리 또는 플롯은 어떠한 관점으로 그려내야 하는지를 두 사람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봄

희랍인들은 문학을 모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플라톤은 이데아에 대한 모방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대한 모방, 자연은 질서정연한 원리를 이야기한다. 줄거리는 원리에 의해서 씌어진 것을 말한다. 감정을 정화하여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그와 다르게 억제를 통한 감정의 소멸을 중요시 생각했다. 카타르시스를 통한 감정의 컨트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비극은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는 것. 비극은 희곡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취한다.

1-5 장에서는 모방의 형식과 비극에 대한 예비 고찰

6-22 비극의 정의와 그 구성법칙

23~26 서사시의 구성법칙

책으로 계획되어서 출판된 책이 아니라 강의록을 제자들이 정리한 것

1권은 2권은 소실되어 없어졌다.

왜?

사회 전반에서 처음 나타난 주장이었다. 문학에 심리적인 조건을 부여한 최초의 사람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고찰을 시작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조명된다. 그가 세세상 바꾼 것은 아니지만 문학전반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쳤다.

<브레히트>

문학과 사회는 어떻게 얽혀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문학은 사회를 예언하기도 하고 뒤따라가기도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브레히트는 그나마 부유한 노동자 집안에서 탄생 하지만 계급에 대한 반항을 하면서 커나갔다.

16살에 좌파적 기관지들을 통해서 시를 발표했었음. 교사들의 사고방식에 반항하며 존경심을 보이지 않음. 그는 학교에서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은 즐겁고 명예로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에 반발하는 글을 써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1차 대전 초기) 겨우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퇴학을 모면했지만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사회를 보는 관점을 글을 통해서 드러냄.

그의 초기작품에서 들어나는 그의 인식:

1918 Baal: 브레히트는 사회바깥에 존재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낭만화. 이는 민중에 대한 것 무정부적인 모습을 가지지만 허무주의 적이지는 않음. 1922. Trommel in der nacht : 1차대전 이후 전쟁 귀환병을 소재로함.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출함.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앙상블. 풍자적 사회 요소들을 말하면서도 혁명적인 결과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주인공을 그려냄. 사회적 이념보다 개인의 행복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 소설인 도시의 정글 속에서 에서 나타남. 인물들은 허무주의적이지 않고 개별화를 보여준다.

특정시점에서 개별성에서 벗어나서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룸. 해체된 개인을 거짓된 집단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 독일 사회에 대한 예견했다.

예술산업의 현실사회에서 실천. 순수 정신사적인 작가들을 비판. 예술의 사회정치 문제들과의 대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가득함. 브레히트는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회에 대한 순수묘사와 고발적 서술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좌익으로 기울기는 하였으나 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었다. 서푼짜리 오페라를 보면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마호가니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적절한 유토피아를 그려내서 사람들이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다.

고전드라마처럼 줄거리에 중요하게 열거하지 않고 병렬적인 연결로 주석을 달거나 관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극장의 사회적 기능을 다르게 해석하여 교육성을 중요하였고 프톨레라리아트 교육에 이용했다. 도살장의 성 요한나. 문제들을 추상적으로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룸. 세계상을 무대 전면에 옮겨놓음. – 이 작품 이후로 영화 쿨레밤페를 만들었으나 금지되고 프라하로 이주 후 베를린에서 나치에 의해서 불태워짐

사회와 그의 작품이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노력

김용현 교수님

왜 시학과 서사극? 2000년 차이를 뛰어넘어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작품들과 상황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비 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론이 서사극의 제목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시학: Poiesis(schaffen, machen)는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 자연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묘사. Natur: 자연, 본능.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Mimic 즉 모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문학이 사회를 반영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를 반영하는지를 가지고 토론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무엇을 모방하는지? 자연? 자연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자연은 어떤 것인지? 21세기의 자연은 도심, 우리는 이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시는 독일어로 문학의 전반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시학1권에서는 비극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무엇이 비극인가? 비범함을 지닌 사람이 아닌 모범이 되거나 보통사람보다 도덕적이거나 품성이 고귀한 사람이 파국적 결말을 맞이했을 때, 주인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때 비극적 상황이 된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파국적 결말을 맞을 때 비극적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시학 6가지 요소 중 가지 중요한 건 Plot 이다. 왜? 어떠한 영향을 현대에 가지고 있는가?

드라마가 재미가 있을 때 끝나는 이유?

극이 길면 긴장감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나 사건을 넣어주거나 (반전), 길이를 짧게 한다. 반전도 과하게 이용되면 극의 긴장이 떨어진다. 드라마가 50분인 이유는 극의 길이에 대한 고찰. 사건들 사이의 황당한 사건이 벌어질 수 는 없고 개연성을 높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상실하고 몰입하게 된다. 사건과 사건의 개연성이 높아서 의심을 하지 않고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잘 구성된 Plot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좋은 예시로 오이디푸스왕. 눈을 떴을 때 진실을 못보고 멀게 되었을 때 진실을 보는, 깨달아가면서 파국에 이르는 것.

Plot –감정이입에서 카타르시스 기본적으로 몰입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시학은 극을 쓰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때는 시와 희곡을 중심적으로 발전하였다. 희곡은 무대에 올리기 위한 작품으로써 관객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시학이다.//

브레히트는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다. 1898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사망. 전쟁을 두 번 겪음. 브레히트는 운이 좋았다. 퇴학당하지 않고 학교로 남겨짐. 2차 대전에 마르크스주의에 빠져 문학을 통한 사회 개혁을 생각함. 문학이나 예술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진 작가로서 있다. 사회주의 성격을 많이 보인 작가로 인식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80년대까지 도입이 불가능했다. 히틀러가 싫어한 3개 집단에 속해 망명을 함. 브레히트는 사회주의자로써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으로 마지막 망명.

브레히트는 시인이며 드라마작가이며 연출을 했는데 모국어로 작품을 쓰고 무대에 올려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했고 전쟁 후 독일로 돌아오나 무국적자가 됨. 이후 스위스 작가들의 영향을 받고 어느 한 국가의 국적을 받고 동독으로 들어간다. 동독의 예술정책에는 반대를 했고 이후에 죽음을 맞게 됨.

두 사람 다 관객들이나 독자들에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다. 오이디푸스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기법이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브레히트 같은 경우에는 비 아리스토텔레스적이기 때문에 그와는 다르게 plot이 개연성을 가지고 물 흐르듯 흐르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는 상업성으로 떨어진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작품은 사회변화를 위해서 즐거움과 유익함을 모두 주어야 하는데 이는 흥미를 끌지 못한다. 두 요소의 조화를 잘 생각해 내야 한다. 브레히트는 그 작품 속에서 많은 위트와 웃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만큼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도 많은 고찰을 했었던 작가 중 하나이다. 브레히트 희곡은 항상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웃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문제로는 현대 브레히트 극에서는 낯설게 하기 효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막스프리쉬 뒤렌마트 브레히트 같은 작가들은 작품이 같은 제목에 다른 버전들이 있다. 상업적이나 교육적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대본을 수정하기 때문에.

브레히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 같은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디이푸스왕등을 다루면서 시민들이 어떠한 감정적 삶을 살 수 있는가? 를 중요한 소재를 다룸

레싱

연극을 통한 교육. 누구를 교육을 교육시켜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시민을 교육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시민비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시민들이 자신과 같은 계급의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교육을 받는 것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왜? 계몽주의 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수정 보완한 것이 레싱의 이론이고 브레히트는 두 모든 사람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제시.

문학이 일상과 크게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라마 등에서 찾는다. 문학이 일상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음.